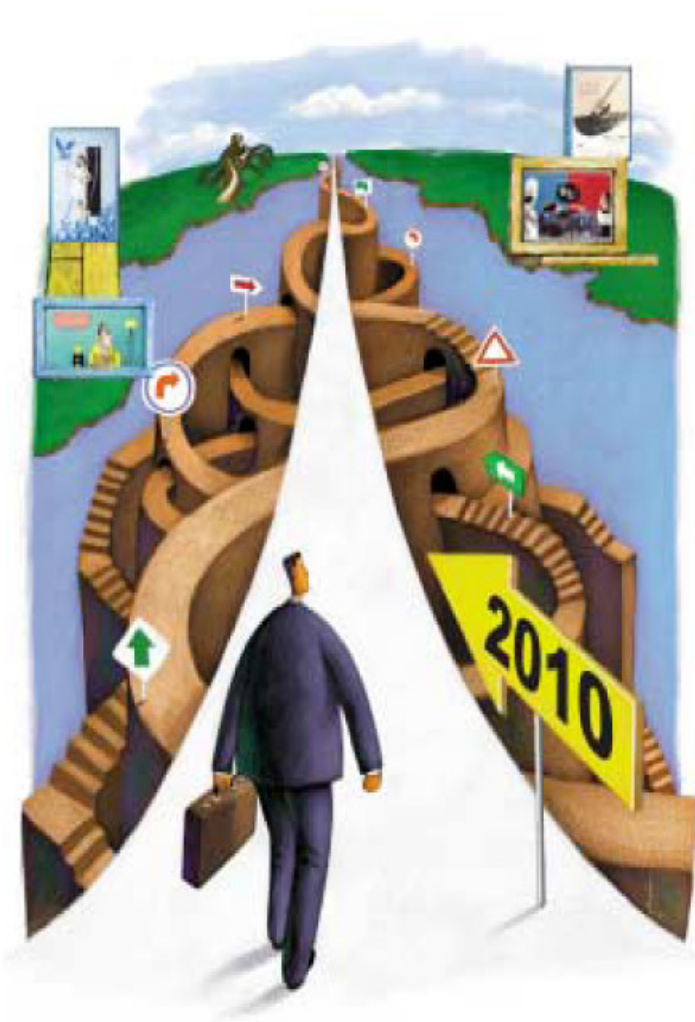


2010 방송광고시장 변화

2010 방송광고시장 변화



●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등 미디어 법이 지난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상파TV에서 간접광고, 가상광고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간접, 가상광고의 판매를 맡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올해 간접광고 시장 규모를 300억 원, 가상광고는 50억 원 등 총 350억 원의 매출을 예상했다. 2012년에는 약 1500억 원의 매출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해서는 미디어렐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채 계류 중에 있어 관련법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일단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기존대로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개정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였기에 현재는 헌법불합치 상태에서 지상파 방송광고판매의 독점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빅뱅이 예상되는 2010년의 방송광고 시장, 경쟁미디어렐 도입 지연에 따른 지상파 방송3사의 광고판매 전략과, 변화의 중심에 있는 간접광고, 가상광고의 현안과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실>